

No. 2013-16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4. 1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노믹스 100일의 성과와 과제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상황지표

-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외국채권구입 확대에 엔저 가속, 99엔대 진입
- 엔저·고주가가 진행, 안전자산인 장기채권의 매도 강세로 장기금리 상승

구 분	4.8(월)	4.9(화)	4.10(수)	4.11(목)	4.12(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	98.60	99.35	99.18	99.58	99.48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	1,143.05	1,142.64	1,148.08	1,141.15	1,132.23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192.59	13,192.35	13,288.13	13,549.16	13,485.14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0.525	0.530	0.615	0.575	0.62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2월 경상수지는 4개월 만에 6,374억 엔 흑자로 반전

구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		
수 출(천억엔)	653	(637)	51	50	53	48	5.3	...
수 입(천억엔)	697	(707)	57	59	59	64	6.1	...
對한국 수출	52.1	(49.1)	3.94	3.93	4.35	4.01	4.25	...
對한국 수입	32.9	(32.4)	2.70	2.82	2.84	3.12	2.92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0)	0.0	▲0.3	▲0.1	▲0.3	0.1	...
실업율(%)	4.5	(4.4)	4.2	4.2	4.3	4.2	4.3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6.4	...
엔화 對미달러	79.1	(80.1)	79	80.9	83.6	89.2	93.2	94.8
환율 對원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1,161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7	12.7	12.7	12.7	12.7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75	0.700	0.795	0.740	0.665	0.56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국채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글로벌화와 산업정책의 전환』 경제산업연구소, 4월11일

*출처: <http://www.rieti.go.jp/jp/events/l3012901/summary.html>

- 『경쟁 압력: 한·중·일 제조업의 역관계를 재평가』 PIMCO, 4월11일

*출처: <http://media.pimco.com/JPDocuments/The-Squeeze-Reassessing-Japan-Korea-China-Manufacturing-Nexus.pdf>

② 주간경제이슈 : 아베노믹스 100일의 성과와 과제

- ▷ 아베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중심의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가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엔저·고주가 등 일본경제 재생의 신호탄이 터지고 있음
- ▷ 아래 내용은 닛케이신문이 아베노믹스의 사령탑인 아마리아키라 경제재정·재생상과 그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엔저, 고주가 지속, 가계와 기업의 마인드 개선

-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아베총리의 리더십과 함께 경제 운용 능력과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음
- 아베노믹스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요소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한 분석과 대응이 적절
- 소비세 증세와 사회보장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자극하여 설비투자과 소비 등 실수요를 조장하려는 전략이 주효
- 대형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

□ 성장전략의 핵심은 생명과학

- 두 번째 화살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실수요를 조성하려 하며, 이를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매월, 정책의 진척상황을 체크한 다음,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6월에 완성되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바로 생명과학 분야로 의료기기의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안전성확보법안 등은 아베 총리가 이번 국회에 제출토록 지시

□ 법인세 인하 문제

-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12년도에 40%에서 35%까지 인하
- 2012~14년도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증세가 추가되었으나, 기한이 도래되면 인하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임
- 실효세율 인하는 모든 업종에 효과가 있으며, 감세의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되지만 재정에서의 제약 때문에 가능한 범위 설정이 문제임

- 한편, 성장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감세나 설비투자 감세 등은 규모는 작더라도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특구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나 법인세감세에 대한 정책은 현실감이 있어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감세방법이 선행될 것임

□ 임금·이윤의 희생

-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게 되면, 임금 및 고용 증가 등의 혜택이 가계에 파급되는데도, 아베총리는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청
- 임금은 노사교섭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본으로 정부가 참견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나, 엔저·고주가 등의 효과를 수익이 증가한 기업이 일시금이라도 좋으니 보수의 형태로 환원해주면 기대가 확산되어 개인소비가 늘어나게 됨
- 노동분배율이 저하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역조건 악화가 큼.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수출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 결국 임금, 이윤 모두 희생된 측면이 있고 일본이 디플레에 빠지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음

□ TPP 대책

- 단순한 가정 하에 관세철폐 영향을 시산하면, 농림수산업의 생산이 3조엔 감소하게 되나, 일본경제 전체로는 3.2조엔의 GDP증대효과가 예상되며,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이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음
- 100명 규모로 정부에 횡단적인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사령탑을 경제재정·재생대신이 맡게 되는 만큼,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간 의견충돌로 정책이 표류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재정재건 노력

- 기업들이 엔고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던 것은 일본제품의 경쟁력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바, 기업이 기초체력을 만들지 않고 임금을 올린다 한들 일과성으로 그치게 됨
- 산업재편을 지원하는 환경조성도 중요한데 기업이 적자부문을 떼어내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음. 이 같은 세제상의 문제도 해결하여 기업재편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서도 세율이 인상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안정도 재정재건도 흔들리게 됨

③ 경제정책동향

□ 일본·호주FTA 타결 전망

- 일본과 호주간 FTA교섭이 이달 중 최종합의 되어 타결될 전망
 - 일본이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대신, 호주에서 일정량까지 저관세로 수입, 호주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5%관세를 당분간은 유지키로 한다는 것이 골자
 - 일본에게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호주로서는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상대국임
- 일·호 FTA 타결에는 일본의 TPP 참가 선언이 큰 몫을 함
 - 호주가 농산품의 관세철폐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TPP 참가국들 중 미국, 캐나다 등 농업대국들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그간 호주는 일본에 소맥, 쇠고기, 설탕, 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양국 정부는 타협안을 최종 조정중임
 - 일본이 소맥과 쇠고기 등에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호주에 일정량까지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유력
- 일본은 호주에게 5% 관세철폐 요구를 당분간 보류할 방침임
 - 호주의 시장규모가 아직 적기 때문에 FTA타결을 우선시한 것임
- 원전 대신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점도 고려하여, 자원보유국인 호주와 연대하여 연료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조달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 미·일, TPP 사전협의 매듭

- 일본정부가 TPP교섭 참가를 위한 美日사전협의를 매듭지었다고 발표
 - 美日합의로 일본은 이르면 7월 본 교섭회의부터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전협의에서는 미국이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던 자동차분야, 보험, 식품안전기준 등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일본이 양보하는 한편, TPP와 병행하여 美日협의로도 계속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일본은 TPP교섭이 종료되기 전까지 3개의 교섭을 추진해야 함
 - 첫 번째 교섭은 TPP교섭에 참가한 11개국과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정책 등 포괄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로 10월에 큰 틀에 합의,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두 번째 교섭과 세 번째 교섭은, TPP교섭 참가와 동시에 실시되는 美日 2국 간 교섭으로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교섭과 자동차무역에 관한 교섭임
- 그러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쌀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품목 인정에 급급한 나머지, 자동차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임
 -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그것도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관세철폐를 유예하기로 함
 -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식품첨가물 관련 규제 완화 등 주로 일본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협상대상이 됨

4 일본기업동향

□ 금리하락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사채발행 증가

- 일본은행의 초강력 금융완화책이 결정되자 기업들이 사채발행에 나서기 시작
 - 미래 설비투자를 겨냥,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장기 금리 하락이 기업들의 재무전략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
 - 닛산자동차는 4월 중 1,000억 엔 규모의 기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닛산의 사채 발행은 2011년 4월 이후 처음. 기간은 5년, 1,000억엔 정도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을 찾고 있음
 - NTT는 조달자금을 산하 사업회사의 설비투자 등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
 - 이외에 세븐앤아이, 브리지스톤과 오릭스, 긴키일본철도 등도 수백억엔 규모의 사채발행을 예정하고 있음
 - 사채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유이자부채(有利子負債)의 20%미만을 점하고 있음
- 금년에는 닛산 등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적극 자금조달에 나섬에 따라, 발행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크게 2가지
 - 우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로 자금조달 환경이 전례 없이 호전되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와 기발행 사채금리가 하락
 -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A급의 사채(10년물)시장에서, 금리가 0.7%대로 과거 최저수준을 기록
-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보험회사 등 채권투자가들의 자금운용수요의 변화임
 - 원래 국채투자로는 높은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데다, 기관투자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적는데 이번 금융완화책으로 일본은행의 국채구입은 매월 국채 발행액의 70%에 상당하는 규모임
 -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사채로 몰림

5 한국관련워치

□ 한화그룹,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 한화그룹이 일본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 금년 중 총 출력 10만kw(100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으로 총 투자액은 300억엔 규모
- 최근 한화그룹의 태양전지사업은 성장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는 독일Q셀즈를 인수하여 각 지역의 생산과 영업 거점을 이어받음
 - 일본에서도 한화Q셀즈저팬이 패널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예상하여 발전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함
 - 한화에서 생산된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닛케이신문이 보도
- 제 1단계로 도쿠시마현 아와(阿波)시에 출력 2,000kw의 발전소를 건설, 7월부터 가동 예정
 - 홋카이도나 큐슈 등지에도 건설을 계획 중이며 금년 중 사업화를 목표로 한 10만kw중, 절반인 50,000kw분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설비인가를 받음
 - 전량 발전이 이루어지면 연간 40억엔 정도의 수익이 예상
- 현재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으로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게스탬프가 2015년까지 3년간 합계 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 일본 IBM과 골드만삭스증권도 NTT서일본 등 7사 연합과 25만kw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참여

□ 마루베니, 한국에 LNG 운송

-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마루베니가 미국산 셰일가스의 운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SK해운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함
- 460억 엔을 들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2척 건조, 이중 1척을 셰일가스 운송에 활용할 계획임

- 이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아시아에 수출하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셰일가스혁명을 계기로 앞으로 늘어나는 LNG의 운송수요 흡수가 주목적
- 마루베니는 공동지분으로 LNG선을 운항관리하고 있는데, 마루베니가 49%, SK해운이 51%를 각각 출자
 - 마루베니·SK 합작기업은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2척을 구입, 2017년부터 운송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LNG선의 적재능력은 18만입방미터
 - LNG선은 조만간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프랑스의 대형 에너지업체인 토탈(Total S.A)의 영국 자회사에 최장 3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함
 - 마루베니·SK해운의 합작기업은 선박의 연료 조달이나 항해 일정 조정, 선박의 유지 등 운항관리를 담당
 - 이 중 한 척은, 이르면 2017년 10월부터 멕시코 연안 LNG기지(루이지니아주)로부터 한국으로 셰일가스 운송을 개시. 수송량은 연간 70만 톤으로 전량 한국가스공사에 공급
 -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미국정부로부터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입허가를 얻고 있음
 - 다른 한 척은, 호주 북서부 대형 LNG프로젝트 이크시스 가스전에서 한국으로의 LNG 운송에 활용, 토탈(Total S.A)이 2017년 1월부터 연간 120만 톤을 한국가스공사에 공급
- 최근 석탄이나 금속 등 자원시장이 부진한 반면, 최대 LNG수입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력회사 등에 공급되는 LNG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루베니는 비자원 분야의 수익개선을 서두르고 있음